

상생발전 · 지역소멸 대응 ‘맞손’

순창군-대상, 업무협약… 지역인재 양성 · 청년 일자리 · 농산물 소비 확대 등 협력

순창군(군수 최영일)과 국내 대표 식품기업 대상㈜(대표이사 임정배)이 지난 5일 순창군청 군수실에서 ‘지역상생발전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소멸 위기라는 당면 과제에 대응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대상㈜ 김경숙 상무가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양 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 협력의 출발을 함께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 3명과, 대상㈜ 김경숙 상무를 포함한 본사 및 순창공장 관계자 4명 등 총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양 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 협력의 출발을 함께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지역 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순창군과 국내 대표 식품기업 대상㈜이 지난 5일 순창군청 군수실에서 ‘지역상생발전 및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및 사회공헌 확대 △지방소멸 대응 전략 수립 등 총 4대 분야에서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순창군은 관련 정책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대상㈜은 자사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협약 이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공동 협의체도 운영할 예정이다.

최영일 군수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대상㈜과의 협약은 매우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 지원,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방소멸대응기금 88억원 확보

남원시, 2026년 투자계획 평가 ‘S’ 등급 선정

남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상위 20%인 S등급을 받아 88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 상위 등급 20%인 A등급 112억원, 2025년 도내 유일하게 우수등급 16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이번 평가에서 S등급 88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3년 연속 인구감소 지역 80개 중 상위 20%에 선정되어, 총 36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지방 소멸 문제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직접 지원하는 재원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 투자계획을 평가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차등 배분하고 있다.

특히 평가는 기존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프로그램 사업 추가 등 성과 중심 체계로 평가 기준이 획기적으로 개편되었으며, 남원시는 변화된 정책 기준에 따라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의 지역 활력 제고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청년·외국인 유학생과 청년 창업,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남원형 특화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중점사업인 ‘남원 이노폴리스 조성’ 사업은 지역특화산업인 바이오,

스마트팜, 미꾸리 산업의 고도화 및 다변화를 추진, 이를 통해 기업에게는 표준화된 바이오소재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에는 스마트팜을 활용한 바이오작물 표준 재배기술 보급과 곤충부산물을 활용한 미꾸리 사료 개발을 지원해,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치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단독주택 45호, 공동주택 42호 등 주거 인프라를 조성하고 ‘학교복합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지방 이주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사업은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역의 교육 서비스 개선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자녀 교육 문제로 발생하는 전출을 줄이고, 지역 인재를 육성해 정주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년 신규사업인 ‘남원형 글로벌 이음발리지’, ‘남원 미식창업 플랫폼 조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청년 창업자가 지역에서 주거·문화·여가·일지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인구를 증대시킬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소방서, 반려동물 화재예방 홍보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우발적 행동으로 인한 화재 위험율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화재예방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일부 시민들은 “강아지나 고양이도 어떻게 불을 낼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지만, 실제로 전기 콘센트에 침을 흘리거나 가스레인지의 터치 버튼을 건드리는 행위, 책상 위 전기장판 리모컨을 떨어뜨리는 행동 등으로 불꽃·과전류가 발생하여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호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할 사항은 △가스레인지·전기레인지 터치 잠금장치 설정 △전기장판·히터 사용 시 반려동물 접근 제한 △콘센트 보호캡 설치 △스케이블 정리 △반려동물의 배회 공간 점검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 송년 발표회 성황리 열려

임실군 노인종합복지관이 최근, 어르신들의 한 해 동안의 노력과 성장을 기념하고 지역사회와 따뜻한 연대를 나누는 ‘2025년 송년 발표회’를 지역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에 앞서 임실 원광어린이집 원아들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개회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색소폰 프로그램 강사로 활발히 활동해 온 우수 자원봉사자(박종태)와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준 우수 후원자(거산 광고 이종권)에 대한 시상도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은 도예, 미술, 음악, 체육 등 다양한 예술·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창의력과 건강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일상속에서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며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임실=전홍영 기자

‘임실 산타축제’ 프로그램 풍성

초대 가수 공연 첫 도입 · 가족형 체험 콘텐츠 대폭 확대

임실군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이자, 전국적인 겨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2025 임실 산타축제’가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과 편의 시설로 돌아온다.

지난해 축제 기간 31만 여명의 관광객이 찾아 축제의 인기를 실감한 만큼, 올해 축제 역시 높은 관심 속에서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페스티벌 일원에서 개최된다.

군은 전년도 방문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가족 중심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고 교통 편의시

설도 보완해 보다 쾌적한 축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산타축제에는 처음으로 초대 가수 공연이 열린다. 개막일인 25일에는 명품 보컬 씨아의 이보람, 27일에는 K-POP 아이돌 6인조 걸그룹 라잇썬, 가수 짜이가 무대에 올라 축제 열기를 한창 끌어올린다.

이 밖에도 산타퍼레이드, 산타 복장 선발대회, 어린이뮤지컬, 마술·버블쇼, 오케스트라 공연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연일 펼쳐질 예정이다.



가족 단위 관광객의 선호에 맞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야간에는 경관조명 연출을 강화해 겨울 정취를 더하고 방문객들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밤의 축제로 전환을 꾀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남원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최우수’

남원시가 지난 5일 충북 오송 C&V 센터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주관 2025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예방 관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추진 실적과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 감시,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 예방·홍보 등에 기여한 우수기관 4곳을 선정, 남원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 예방 관리와 현장 중심의 대응 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 보건소는 농촌 지역 특성상 진드기 노출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위험지역 중심의 집중 예방, 환경 정비, 고위험군 맞춤 교육 등 선제적 예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제작한 리플릿·홍보물·교육자료를 전 읍면동에 대대적으로 배포하고, 전관람·현수막·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연중 상시 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예방수칙 실천을 유도하고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성평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획득

순창군이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8년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성평등가족부가 심사해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가족친화기관 인증 심사는 가족친화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수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다.

순창군은 2014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17년 인증유지, 2019년, 2022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까지 3회 연속 재인증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